
第113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1999年5月28日(金) 午後4時

場所 企劃經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2. 市政改革團所管懸案業務報告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 1面
-

(16時 39分 開議)

○委員長 鄭韓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提出)

○委員長 鄭韓植;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市政改革團長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市政改革團長 李老根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개혁위원회는 민선2기 시정의 효율적인 구현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와 시민대표, 그리고 의원대표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 개혁과제의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 市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市長에게 자문역할을 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기한이 99년 6월 30일로 이번에 만료예정인 됨에 따라서 위원회 운영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투자기관 구조조정 권고안에 대해서 이행추진사항을 계속 점검, 독려, 자문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 및 인력조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특히 민간위탁이 상당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그리고 사장추천위 구성과 市長과 경영진간의 경영계약 체결문제,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제 도입문제, 사외이사제 도입문제, 서비스품질 기준설정 및 고객현장 제정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中央政府 및 地自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6월 정도 예정이 됩니다만 2차 구조조정에 대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市에서 여러 가지 시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목표관리제라든지 시민평가제 등 여러 가지 시정개혁정책 상호간에 연계와 조정자문을 하고, 공무원교육 개혁이라든

지, 특히 지하철 운영시스템에 대한 개혁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재설계 자문지도, 민간위탁 대상선정에 따른 심의 자문 등 이런 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연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요개혁 현안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도와 자문을 구하고자 위원회 운영기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6개월간 연장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조례개정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鄭韓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東秀;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鄭韓植;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진행방법을 일문일답형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일괄질의 일괄답변이 효과적이겠습니까?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亮漢委員님.

○李亮漢 委員; 李亮漢委員입니다.

저희가 大統領이 취임해서 구조조정 방침에서 行自部 지침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정개혁위원회가 결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정개혁위원회는 市政改革團이 생기기 전에 서울시 자체에서 설치된 거죠? 局長님, 그렇죠? 시정개혁위원회는 市政改革團이 생기기 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새 政府 출범하자마자 시작이 되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의 행정구조상 市政改革團이 없을 때 임시위원회로 설치된 것 아닙니까? 張仁松 局長이 처음 취임했을 때는 우리 시정개혁위원회가 서울시 자체의 행정단위인 局이 생기기 전에 먼저 생긴 것 아닙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네, 그렇습니다.

○李亮漢 委員;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 李老根 局長이 계시는 市政改革團이 왜 생겼습니까? 생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있는데 市政改革團을 편제상 局으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이것은 시정개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2002년까지 행정기구로 조직을 했습니다.

○李亮漢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이 서울시의 모든 시정을 개혁하기 위해서 서울시내 구조적인 조직상태를 市政改革團을 만듦으로써 임기 4년 동안에 개혁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만든 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정개혁위원회는 市政改革團이 생기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마땅히 市政改革團이 생기

고 나면 市政改革團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시정개혁위원회는 독립기관입니까, 市政改革團의 산하기관입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독립이다, 산하다 이 개념보다는 市長의 자문기구역할을 하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면 지금 李老根 局長이 계시는 改革團은 뭐하는 데입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금방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혁에 관한, 특히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고 또 기획된 사항을 집행해 나가는, 또 평가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자문을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러니까 시정개혁위원회하고 市政改革團은 동등한 기준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이 상위기관입니까?

지금 보면 서울시는 市政改革團이라는 것을 만들어 두고 市政改革團이 시정개혁위원회를 보조하는 기구처럼 보여요. 실제 활동이 시정개혁위원회를 보조하는 곳이 市政改革團으로 보이는데, 이것 맞습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표현상 보조라고 하기에는 저로서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자문을 받고 자문된 사항이 市로 통보가 되면 그것을 반드시 집행을 해야 될 귀속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자문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하간의 관계라기 보다는 일종의 자문성격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李亮漢 委員; 좋습니다. 행정기구인 市政改革團이 서울특별시 시정개혁위원회에서 의사결정을 했을 때 비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이러이런 것은 맞지 않으니까, 우리 改革團에서 보니까 맞지 않더라 해서 비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런 사항이, 지금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나서 그것을 보고를 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보고라기 보다 거기서 설명을 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런 대안이 있다 하는 것을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市政改革團이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수용하는 것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市長이 市政改革委員會와 市政改革團 이원조직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왜 그런고, 자기 산하단체인 행정기구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시정개혁위원회를 둔 것은 市長이 행정에 대해서 면피행정입니다, 면피행정. 자기가 어떤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아, 우리 시정개혁위원회에 유능한 사람이 있어서 거기에서 결정한 사항을 나는 따랐다, 나는 잘 모른다, 시정개혁위원회에 박사들이고 유능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따랐다, 그리고 우리 市政改革團長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 좋은 일은 자기가 다 스스로 한 것이고 잘못된 일은 시정개혁위원회와 市政改革團이 하는데 시정개혁위원회는 임의기구입니다.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市政改革團長은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시정개혁위원회라는 데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시정개혁위원회가 지금 보면 당초에는 정부방침에 의해서 구조조정에 대한 주된 것을 했는데 이제는 안하는 것이 없어요, 안하는 게. 시정개혁위원회 사람들이 만능박사들만 안 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구조조정을 하는데 다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정보도 알고 교통도 알고 우리 환경, 생

활, 뭐 다 우리 서울시 부처에 있는 그局的 일을 다 아는 사람들이입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지금 위원회는 3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100% 각계각층을 망라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대체로 분야별로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요, 政府 방침이나 市長 방침에 이 사람들이 앞서서 간다, 대충 政府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市長도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앞질러 가서 행정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지금 市政改革團長께서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앞서가 얘기 못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우리가 보조를 맞추어 주는 입장이지만 이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제 우리가 있었습시다만 계약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전문직, 별정직하고 李老根 局長께서는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약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일반공무원을 어떻게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한도는.....

○李亮漢 委員; 원론적으로만 얘기하세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개별법규가 있기 때문에 개별법규에 맞는 신분임용과 또 신분보장과 또 전문분야에 대해서 뽑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규에 의해서 정리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직 공무원은 公務員法상 완전히 신분보장이 된 상태이고, 별정직은 그에 준한 상태이지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특수한 목적달성을 위해서 당해 분야의 전문직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한정된 지구에 한정된 전문지식을 가진 사

람만 뽑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우리가 계약직을 하면 통상 몇 년 계약을 합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통상적으로 계약은 3년을 하고요, 매년 보수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합니다. 다만, 최초 임용 때는 1년씩 하기도 합니다.

○李亮漢 委員; 통상적으로 계약직이라는 것이 1년 계약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야구선수나 TV 텔런트나 자유직업을 가진 사람들, 우리 회계사도 계약직으로 통상적으로 하고 내년엔 바꾸는 것인데 계약직에 있는 사람이 자기 뜻도 펴지도 못하고 미움을 사게 되면 1년만에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市長이 인사권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관계 없다는 얘기에요. 일반직 공무원은 公務員法에 의해서 자기 위치를 할 수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의 가장 병폐적인 것이 뭐냐 하면 市長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기 뜻을 펼 수가 없어요.

야구선수 같은 사람도 트레이드 당하고 다른 구단으로 가고 하는 것 구단주에게 잘못 보인다면 감독한테 잘못 보이면 다른 구단으로 1년 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야구선수가 타자가 나와서 공을 칠 때 1군으로 안 뽑아주면 못 가는 겁니다.

계약직 공무원들이 1년이란 계약을 한 뒤에 市長이 일을 안 시키면 공짜로 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구분 없이 무차별하게 계약직이라든지 별정직이라든지 일반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시정개혁위원회에 역할을 두고 싶다면 市政改革團 밑에 두어라, 두어서 市政改革團長이 이를 관리할 수 있을 때 시정개혁위원회가 필요한 것이지 현

재 상태로는 필요하지 않다, 市長의 자문기구로서 市政改革團長이 일을 하는데 도와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지, 시정개혁위원회가 市長을 바로 보좌해버리고 나면 市政改革團長이 할 일이 없어요. 항상 市政改革團長은 뒷북만 쳐야 된다 이거야. 이런 제도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그러면 市政改革團長 밑에 시정개혁위원회를 두어서 市政改革團長을 보완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 기능을 두어야 맞는 것이지, 市長이 시정개혁위원회를 두고 난 뒤에 우리 李老根 團長에게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하시오 하면 안할 재간이 있습니까? 안할 재간이 있습니까? 市長의 결재를 받았다는데, 市長에게 품의하고 市長이 승낙을 했다는데. 이것은 공무원 구조상 안 되는 것 아닙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정상에는 市長의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의 일반론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규정했을 따름이지 현실적으로는 市政改革團長이나 또는 副市長님이 회의를 총괄하고 주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의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자유로운 토의가 진행이 되고 저희들도 의사개진을 합니다. 그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거기서 설사 결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정과정에 제가 市政改革團에서 의사도 표명합니다만 그것이 넘어왔다 하더라도 와서 이것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 했을 때는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른 대안을 가지고 시정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물리치기도 하고 합니다.

○李亮漢 委員; 제가 끝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1년 6개월 하고 나면 시정개혁위원회가 없어진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시정개혁위원회가 1년 6개월 연장하면 그 다음에 또 시정개혁위원회가 연장해 달라 안할 겁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저로서는 市長님 임기가 4년이고 또 시정개혁이라는 것은 대개 초반기에 시작을 해서 중반기까지는 대부분 끝나야 된다고 봅니다, 그 관계상. 그렇다면 그 이후로는 전혀 연장할 명분도 또 실익도 없고 또 저 개인적으로 그 이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할 각오로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李亮漢 委員; 당초에 우리가 시정개혁위원회 임기를 정할 때 지금 李局長 말씀대로 초창기에 자기의 어떤 계획을 플랜을 세워서 Do, 일을 하고 See, 판단해서 새로운 플랜에 의해서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市長이 취임한 지 1년이 되었는데도 계획이 플랜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Do하는 실천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상황판단인 심사분석 See는 언제 할 것이냐 이거야. 그렇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高建 市長은 계속 시정개혁만 하다가 그만둘 사람이라는 얘기가, 지금 이론대로 하면. 2년 6개월을 플랜만 하다 보면 언제 뭘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것을 실천하고 어떤 것을 판단하고 심사분석해서 새로운 제도를 가져오느냐 이거야.

지금 이미 시정개혁위원회는 플랜이 끝나야 할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 의해서 市政改革團長이 실천에 옮기고 그 실천에 대한 보완적 단계로 가야 되는데 1년 6개월 더 연장하고 나면 3년 동안 플랜하다가 1년 동안 일하다 마는 거예요. 이것

은 장난이에요, 장난. 市長이 우리가 얘기하면 행정의 달인이 라면서요? 행정의 달인이 계획만 3년 하다가 끝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 반 동안에 무슨 일을 실천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다고 그러면 과감하게 市政改革團 밑에다가 새로운 시 정개혁위원회를 두어서 市政改革團長이 과감하게 힘을 갖고 끌어 나가는 제도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市政改革 團長이 있으나마나 하다 이거야. 왜 무슨 일이 생기면 市政改 革團長만 혼내고 좋은 일이 있으면 시정개혁위원회만 하고. 지금 구조가 이렇습니다. 일이 잘못된 상황은 市政改革團長이 책임을 져야 되고 좋은 일은 시정개혁위원회가 그것을 받습 니다. 지금 현재 이것 이상한 자리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정개혁위원회가 市政改 革團이 생기기 전에 생겼기 때문에 그 실천부서인 市政改革 團이 생겼으면 시정개혁위원회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局長은 할 말 있으면 답변하세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아까 말씀드린 것에 약간 중복이 되 겠습니다만 시정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또 집행, 평가, 또 그에 대한 결산 이것까지를 한 2년 정도로 계획을 한다면 지금 6월말까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더 기간은 연 장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4단계에 대해서 성실하게 시정개혁 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亮漢 委員; 이상입니다.

(鄭韓植 委員長, 吳尙俊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吳尙俊; 다른 委員님 질의하실 委員님, 이금라 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라 委員; 시정개혁위원회 위원명단 좀 달라고 아까 시

작 전에 부탁드렸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옵니까? 지금 내 주신 자료에 보면 바뀐 것으로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그리고 출석현황도 아까 직원에게 부탁 말씀 드렸는데요.

團長이 그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감이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정개혁위원회가 처음 발족될 때에도 議會하고 논의가 없이 市長이 취임하자 그 다음 날에 시정개혁위원들을 초청해서 임명장을 전부 주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조례가 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다루어질 적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지적이 있었어요.

이 얘기를 왜 다시 말씀드리냐 하면 위원회에 대해서 지난 임기 3년 동안 정말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별로, 본회의에서도요.

그렇게 해서 더군다나 서울시 행정에 밝은 高建 市長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議會 조례로 규정하도록 地方自治法상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관례대로 시작했던 말입니다.

그것이 高市長님의 마음인지, 아니면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의례적으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것을 議會 입장에서 보면 위원회 하나마나라는 얘기에요. 상임위원회 말입니다. 본회의 하나마나라는 얘기에요. 3년씩 그렇게 얘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고 그냥 하잖아요.

그 점 많이 지적해서 속기록에 명시를 했어요. 都明正 室長이 다시는 먼저 구성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는 단서조항을 속기록에다 달고 출발한 것이 지금 이 시정개혁위원회입니다.

그리고 왜 한시적으로 시작했겠어요, 1년이라는 기간을 놓고. 위원회 하도 난립하고 너무나 많으니까 앞으로는 일몰제를 도입해서 꼭 필요한 기관만 하고 제각제각 정돈을 해 나

가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나서 오늘 만약의 경우 여
기에서 지연이 되면, 6월 30일이 만기일인데 한 번의 재고할
시간적 여유도 없이 마지막에 市政改革團長 조례개정안 올리
신 거예요. 그것부터도 참 잘못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議會는 올리면 그냥 다 통과되는 것으로 아는 거
예요. 執行部가 생각하는 것하고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그
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부결됐다고 칩
시다. 언제 올릴 수가 있어요? 그것 議會를 압박하는 거예
요? 답변해 보세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 새로 局長으로 왔습시다만 그 기간이 얼마 안 됐
고 누구 책임을 미루기 보다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본의 아
니게 막바지에 의안을 제출한 것을 저도 사실 미안하게 생각
합니다.

○이금라 委員; 뭐가 본의 아니에요? 6월 30일은 이미 조례
상에 명시되어 있는 날인데 우리 회기는 다 연초에 공표되어
서 하루도 못 움직입니다, 市長님 일정 때문에. 뭐가 본의 아
니고 의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 마음속은 서로 모르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양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갖고 있
는 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 없어요. 나와 있는 행위에서 결
정이 나는 거예요. 나와 있는 행위 자체가 의사일정 다 정해
져 있고 날짜 정해져 있고 일사부재리라 이런 회기에 상임위
원회에서 오늘 안 결정되면 이번 회기 내에는 재상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것은 기간문제니까 문자 수정하려면 1년 6개월
이 2년이 되든지 1년 3개월이 되든지 그런 이상한 장난을 하
기 전에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국장쯤 되면 그것을 아셔야

죠. 議會를 우습게 아니까 그런 발상을 하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그렇게 시작한 위원회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앞으로 새로 왔느니, 온 지 얼마 안 됐느니, 오래 됐느니 그런 말 좀 빼고 합시다. 왜냐 하면 우리가 바꾸라고 해서 바꾼 것 아니에요. 市長님이 그 일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바꾼 것 아닙니까? 1년만에 시정개혁위원회 이렇게 엄청난 일 하고 있고, 그 일을 주관하는지 뒷받침하는지 모르겠지만 바꿨으면 그 다음 자리 이어받아 온 사람은 아네, 모르네, 시간이 짧네, 기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시정개혁위원회의 기능이 조례상에 5가지입니다. 市長이 부여하는 사항이 5번이에요. 제4호가 실무위원회가 상정한 안건이에요. 市長 이 부여하는 안건보다 실무위원회가 상정하는 안건이 더 높은 것은 처음 봐요. 아무튼 존중을 하는 모양입니다.

서울特別市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다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과 개혁정책에 관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추진방향과 대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1,2번은 나는 적합하다고 봅니다. 3번부터는 잣대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개혁을 그렇게 합니까? 1년 안에 무슨 일을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여기 團長께서 제출해 주신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렇게 혁혁한 일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만나서 엄청나게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다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노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기 본업을 하면서 여기 와서 본위원회 31회, 실무위원회 49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 굉장히 시간 할애 많이 한 거라

고 생각을 해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들 이렇게 부러먹을 생각이세요, 돈 한 번에 5만원씩 주면서?

그리고 나는 그런 분들이 교체를 안하면서 앞으로 1년만 더 하겠다고 하는데 올까가 걱정이 돼요. 출결표를 그래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의는 했겠죠. 그런데 도대체 본위원회 21명과 실무위원회 14명 중에서 이 회의에 얼마씩 참석했는지를 도표로 만들어서 지금 제출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해도 전문성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구조조정 부분은 인정을 해요. 공무원들이 자기 동료들 잘라내는 일에 나설 수 없기 때문에 약간 객관화된 집단에다, 또 물론 구조도 많이 달라지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행정학자 중심으로 된 이 시정개혁위원회 구성이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 만족하지는 않고 중차대한 실수도 있었지만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야말로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그 실수를 커버 못한 것은 전부 다 高建 市長 이하 執行部가 책임질 일이지 이렇게 박봉에 시간 내준 위원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부터 할 일들은 이것이 왜 이분들이 할 일이에요? 시민서비스평가제, 정보화사업, 업무재설계, 시민현장 제정, 위원회정비방안, 자치구 공사·공단의 문제, 운영까지 말이죠.

자치구가 엄연히 독립된 地方自治團體인데 공사·공단을 만들든 말든이죠. 서울시가 왜 여기까지 다 관여를 하면서, 하기는 법상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왜 시정개혁위원회한테 자문을 해야 돼요? 바꾸어 말하면 중요한 이런 일들을 공무원들이 안하고 이 사람들에게 다 시켜버리고

나면 공무원들은 월급 받아서 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는 자문기구가 아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시정개혁위원회는 정책 결정을 했습니다. 議會하고 얘기도 하기 전에 市長님이 그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을 그대로 수정 없이 구조조정을 다 했어요. 市長님이 수정한 것 있어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상당히 많습니다.

○이금라 委員; 뭐가 있어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예를 들어서 6개 투자기관의 구조조정 같은 경우에 조직개편상에 있어서 권고안하고 실제 집행한 것하고 일정부분 조정된 것이 있고요.

○이금라 委員; 6개 투자기관은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地下鐵公社를 제외한 나머지 5개 투자기관은 확정이 됐습니다.

○이금라 委員; 계속하십시오.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리고 산하 사업소 같은 경우도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사항이지만 이러이러한 장애나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車輛整備事業所 같은 경우에는 완전위탁을 주라고 했습니다, 민간한테.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것은 완전위탁을 줄 수 없고 일부 민간위탁을 주었다든지 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금라 委員; 지금 예시로 들은 市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議會가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논외로 하고,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지도 않았습시다.

그 다음 두번째, 車輛整備事業所 같은 경우는 시정개혁위원회가 실수한 것이지요. 법규를 잘 몰라서 당위적인 주장으로 민간위탁을 얘기한 거죠. 그것이 실행할 수 없는 부분에 부닥

쳐서 서울시가 고친 것뿐이지 나머지는 부당한 것도 통과된 것이 많아요. 간호직 계약직이 바로 전형적인 예예요. 그것은 계약이지 개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논하고 싶지는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市에서 시정개혁위원회 권고안대로 그대로 집행하려고 할 적에 현행법상 걸려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 못합니다 한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안 받아들인 것은 나는 없는 것으로 알아요.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만큼 존중했다 말입니다. 자문기구의 형태가 아니었어요, 현재까지 해 왔던 일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서울시가 지금같이 일사불란한 구조조정을 해 냈다고 높이 평가해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원들 가지고 앞으로 더 일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시정개혁위원들한테 너무 부하가 많이 걸리고, 잘못됐을 때 李亮漢委員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소재의 문제가 생기게 되고, 물론 高建 市長님이 책임을 지시겠지만 市 안에서도 너무나 시정개혁위원회가 많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문제제기가 앞으로는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다루는 업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그 다음 문제제기는 1년이에요, 기간 1년. 그 1년 저희가 정해드리지 않았습시다.

아까 처음에 지난 얘기 저 잘 안하는데 그것을 상세하게 든 것은 그렇게 이상한 절차를 거치면서도 議會는 새로 부임한 市長의 뜻을 존중해서 本會議에서 일어서고 앉고 몇 번을 하면서 통과시켰어요. 우리는 원하는 대로 밀어드렸어요. 이

제 와서 무슨 근거로 1년 6개월을 더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과 1년 전입니다. 1년 전에 예측을 1년 하겠다고, 많은 위원회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더군다나 市長이 그렇게 무게를 두고 당선되자마자 구성한 위원회예요. 그러면 구상이 있어서 1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무슨 일도 해야 되고, 무슨 일도 해야 되고, 그것은 지금 시정개혁위원회가 1년을 굴러본 후에 새로이 나온 문제들 아니예요? 새로이 나온 업무들 아니예요? 그러면 그 업무에 맞게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자세라고 봐요. 약속을 議會하고 그렇게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이런 일, 이런 일, 또 중요한 일 있으니까 1년 반 더 늘려달라, 1년 반 후에는 또 일이 나오죠. 우리 나라 50년 묵은 나라가 하루 아침에 개혁되겠습니까?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해요? 뭘 책임진다고 아까 책임진다고 그래요? 바뀔지도 모르는데.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약속은 파기할 만한 중대사 사유가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한 페이지 반짜리 제안설명에 시정개혁위원회가 없으면 서울시정이 난리날 내용이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커버하고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회 일몰제 도입해서 개별적으로 다 만드세요. 일단 우리 專門委員이 여기 문제 제기한 것처럼 정보화사업은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보다 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숫자만큼 들어와서 정보화추진위원회 있어요.

거기에서 하면 되죠. 副市長님 거기에서도 위원장이신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議會를 경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지 모르니까 여유를 두고

團長은 이 안을 제안을 했어야 돼요. 둘째,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일단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吳尙俊; 수고하셨습니다.

梁敬淑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梁敬淑 委員; 질의라기 보다는 지금 시정개혁위원회를 1년 6개월 연장하는데 1년 6개월 동안 무엇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조금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시정개혁의 기획과 집행과 평가와 결산, 이 4단계로 나눈다면 지금은 기획부분이 상당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부 기획부분이 남았습시다만 오늘 제시한 내용은 지난번 기획한 것 중에 해결을 못하거나 또 대안을 만들거나 이러한 부분이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하고 또 그것에 따른 집행과 평가와 결산을 하려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좀 기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이런 문제는 이미 작년도에 제정을 할 때 이것을 委員님들한테 더 심사숙고해서 설명을 잘 드렸어야 했습니다만 그렇게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梁敬淑 委員; 지금 기획을 해서 일부를 추진하고 있고, 추진되지 못한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어떤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죠?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우선적으로 6월 중순이나 6월 말부터 예상되어 있는 2차 구조조정 문제가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2차 구조조정안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아직 확정된 것이 공식적으로 시달된 바는 없고, 다만 내부적으로 行自部에서 지금 지침을 만드는 것까지는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의 범위 이것까지는 공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한다는 원칙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적으로 2차 구조조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업소까지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직 다는 마무리가 안 되었습니만. 그것과 별개로 더 추가로 行自部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을 또 마련한다 이것입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2단계.....

○梁敬淑 委員; 2단계 구조조정, 2차 구조조정이 아니고요, 2단계.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것이 현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지하철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행을 하고 있거나 했거나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여기와 관련해서 나온 것이 지하철의 운영시스템 문제를 결론 못 짓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기하고 2기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지금 연구중에 있는데, 아직 交通管理室하고 그 초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이 공론화되면 상당히 큰 문제로 저희들 市政改革團의 업무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요, 이 문제는 지하철 문제는 시정개혁 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地下鐵公社하고 都市鐵道公社를 통합하기는 너무 시기상조이고 우리가 있다라

고 해서 地下鐵公社하고 都市鐵道公社하고 그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안을 만들어서 제출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겁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거기에서는 현재 단기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것을 그러면 1년 반 안에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 거론해서 결론짓겠다는 거예요? 중·장기라는 개념이 뭔데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지난번에 노사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것이 2000년 말까지 완전 확정해서 공표하도록 이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梁敬淑 委員; 통합하는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네, 그렇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이것과 관련해서는.....

○梁敬淑 委員; 반드시 이 부분은 지하철시스템은 1~2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처음에 만들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都市鐵道公社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노조문제가 심각하게 발생을 하니까 서울시 차원에서는 都市鐵道公社를 별도로 만든 것이거든요,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또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 문제를 쟁점으로 안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 문제를 재론하기 위해서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라는 것은 너무 빈약한 이유가 아니에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여러 가지 업무 중의 하나라는 얘기

입니다, 이것만이 아니고요. 그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으로 한 것 중에 공무원 교육제도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에 관한 사항을 계속 자문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장경제원리 도입에 관한 것을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것이 민간위탁 확대방안입니다. 민간위탁 확대사업인데 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위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받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委員님들한테 오늘 또 업무를 보고 하겠지만 BPR 업무재설계와 관련한 자문과 지도도 계속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委員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서비스평가제라느니 규제개혁이라느니 이런 것은 물론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이런 것이 난립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그 정책 간에 어떻게 조율하고 조정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를 시정개혁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자문을 받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단위업무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받기보다는 정책간에 충돌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결과를 양산하고 하는 것을 예방해 해 준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항은 대개 업무내용에 관한 사항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과정 그리고 평가, 결산과정까지 마무리를

해 주어야 명실공히 나중에 하나의 백서도 만들게 되겠습니까만 효율적인 그리고 성공적인 개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들이 기획을 해서 본인들이 안을 내고 그것을 집행에 반영하도록 건의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집행을 잘 했느냐 평가까지를, 본인들이 만든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평가까지 하고 나가겠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제3자들이 하는 것이고 議會라든지 서울시 자체에서 시정개혁위원회가 이러한 안을 건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집행을 시켜 보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서울시라든지, 제3의 용역기관이라든지, 議會라든지, 시민들이 평가하는 것이지, 본인들이 안을 짜서 그것을 실행에 옮겨 놓고 그것을 평가까지 결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또 뭐니까? 그것이 타당하다고 보세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그 의미는 이런 뜻입니다. 당사자들이 직접 그것을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긴다기 보다는 평가하는 방법론이나 절차나 또는 아이টে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구한다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년이 임기였고 1년 동안 무엇을 하겠다 라는 것에 대한 방향이나 내용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議會는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내부에 좀더 심도있게 들어가자면 문제도 많이 있었고 위원들의 불성실함이나 위원 개개인들이 과연 이 사람이 시정개혁을 할 당사자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받을 사람

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할을 했는데 임기 1년보다도 한 배 반이나 더 넘게 또 임기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고 지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만들 때 왜 임기를 1년으로 했습니까? 그때 2년으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정개혁위원회 자체 내에서 실무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지지만 本委員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행한 그 동안 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평가와 반성과 마무리를 할 기회는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과제, 어떤 어떤 것들이 더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임기 1년 보다 1.5배를 더 늘리는 것은 저는 문제가 좀 있다, 그리고 시정개혁위원회가 과연 그때까지 잘 해 줄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아까 말씀하신 대여섯 가지의 과제들을 1년 반 동안 제대로 잘 수행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시정개혁위원회에도 참여해 봤고 시정개혁실무위원회에도 참여해 보았습니다만 이 사람들이 이러한 역할을 완벽하게 다 해 낸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년 동안의 활동을 굳이 연장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면 6개월 정도 연장해서 평가를 하게 해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委員님의 따끔한 충고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여기 몇 개 예시를 제시했습니다만 이것을

시행을 해서는 사실 개혁이라는 것이 짧은 기간 안에 확실히 강도 높게 추진되어야 성공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제시는 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최소한 1년간만 주시면 저희들이 마무리작업을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고, 만일 6개월을 하는 경우에 다소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영상 이번 위원 중에서 여기에 부적정한 분들이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비롯해서 위원에 대한 개편을 불가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기 6개월이라는 것은 사실 위원회 기술상 조금 그렇고 그래서 또 업무를 착수를 하고 그것을 성공시키기까지 한 1년간만 주신다면 최대한 저희들이 분골쇄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부적합하다라고 보여지는 사유들은 대략 무엇 무엇입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우선, 그 동안 다른 직장이나 공직으로 상임위로 가셨다든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일로 바쁘셔서 참석률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또는 직장을 바꾸어서 지방으로 자주 출장을 하게 되셨다든지 이래서 시정개혁위원회 활동에 열성을 못 보이던 분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편상 이번에 좀 빠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합해서 재개편을 하려면 새로운 활력과 또 새로운 모색을 찾아서 개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시정개혁위원회 본위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실무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이러 저러한 사유들을 다 합해서.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정확히 제가 책임있는 말씀은 못 드

리겠습니다만 대충 7명 내지 8명, 많으면 10여 명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반 이상이 지금 부적절한 사유를 안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아니죠, 34명이죠.

○梁敬淑 委員; 34명 중에 7명 내지 8명, 본위원회, 실무위원회 합해서요?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네, 그렇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한 20% 정도 되는 셈인데 그 사람들의 역할이 어차피 지금까지도 충실하지 못했다고 봐요, 지금 교체사유가 될 만한 정도면. 그 전에 서울대교수였던 재정쪽 오연천 교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반에만 몇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셈이고, 등등 그런 사유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활동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지도 않았던 역할을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새로운 사람을 모셔다가 위원으로 위촉하기 보다는 그 사람들 없었어도 시정개혁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잘했다고 평가한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 동안에도 불성실하게 하고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잘했다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적절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지금 있는 나머지 실무위원과 개혁위원들이 평가작업과 마무리 작업을 하게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몇 개월 동안 할 것, 물론 조정은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것 인정을 안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하자면. 인정을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하든지, 아니면 내용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 몇 개월 일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앞뒤가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인원이 있으면 사유와 근거를 제기하면서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해 왔던 위원들이 지금까지 했던 작업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吳尙俊 幹事, 鄭韓植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鄭韓植;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정회에 앞서서 우리 吳尙俊委員長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尙俊 委員;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잘 지적을 하셔서 저는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團長이 생각하기에 시정개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시정개혁의 주체는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시민들이 뽑은 市長과 공무원과 시민 전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천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역시 시정 집행하는 부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吳尙俊 委員; 주체가 집행부가 되어야 되고 시정개혁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방향설정과 일정한 플랜을 짜는 데 자문, 틀을 짜는 데 국한되어야 되죠. 그리고 구체적인 집행이나 정책을 수립해 나가고 그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제기한 대로 저는 이 상태로 만약 연장이 된다고 하면 시정개혁위원회가 아니라 시정자문위원회로 될 것 같습니다. 건드리지 않

는 업무도 없고, 구체적인 업무도 건드리고, 포괄적인 업무도 건드리고, 그리고 議會는 할 일 없이 명예로운 위치에서 그냥 있는 것이고, 실제 시정을 이끌어나가는 중요한 결정사항은 시정개혁위원회에서 민간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그런 식으로 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梁敬淑委員님께서 6개월 얘기 하셨는데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團長께서 설명하신 새로운 사람을 선발해서 하면 6개월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데 그것이 단 한 달 동안의 일이라도 사람이 그 일을 보는 입장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꼭 1년을 채워야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실무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까지 것들을 다시 정리해서 향후과제 이런 것들을 제시해 주는 그런 정도까지 실무적으로 몇 개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市政改革團長 李老根; 1년 정도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吳尙俊 委員; 1년씩 걸립니까?

○李亮漢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져오신 활동한 보고 49가지를 보면 여기 용역계약한 것이 태반이에요. 都市開發公社, 地下鐵公社 용역계약이 태반이고, 또 1단계 구조조정, 2단계 구조조정밖에 없고, 각 부처에서 보고받은 사항밖에 없어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을 토의했는가, 나는 이 49가지 내용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 필요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韓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41分 會議中止)

(18時 01分 繼續開議)

○委員長 鄭韓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의사일정 제1항 서울特別市市政改革委員會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계속 듣는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회 간담회 결과 동 안건에 대해서는 좀더 심사숙고하고 좀더 진지한 토의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때문에 동 안건에 대해서 금일 제2차 企劃經濟委員會에서 의결을 하는 것보다는 차후에 있을 제113회 임시회 제3차 회의 이후에 적당한 날짜를 잡아서 따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제2차 企劃經濟委員會에서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추후 여러분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제2차 企劃經濟委員會에서 심사한 사안에 대해서 보류할 것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2차 企劃經濟委員會 임시회 의사일정 제2항 市政改革團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추후 제3차

이후 따로 의사일정을 잡아서 제1항과 함께 심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역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이것으로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議事棒 3打)

(18時 04分 散會)

o出席委員

鄭韓植 張夏雲 吳尙俊 梁敬淑

吳世根 李금라 李善宰 李容富

李亮漢 趙相勳

o專門委員

金東秀

o出席公務員

市政改革團長 李老根